고용노동부	보도설명자료	휴먼뉴딜 한국판뉴딜	
배포일시	2021. 10. 21.(목) / 총 4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	과 장 이부용 서기관 김병수 사무관 임한일	044-202-7432 044-202-7443 044-202-7441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였으며, 앞으로도 내실 있게 관리하겠음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10.21.(목) **세계일보 "고용장려금 4조 썼는데 60% 3년 못채우고 퇴사"** 등 기사 관련

> ○ (선략)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이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했을 정도다.
>
> ○ (중략) 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"고용효과 중 대체 효과와 전치 효과 등의 상쇄효과를 고려하면 순수 고용효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약 30~50% 정도로 추정된다"고 밝혔다.
>
> ○ (중략)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수는 많게는 1.9명, 적게는 0.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.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체들의 청년 고용유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의 일자리로 채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 결과적으로 청년의 고용총량은 그대로이다.
>
> ○ (중략) 지난해에만 약 1조원을 지원금으로 투입한 "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"과 "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"을 통해 지난해 7~12월 총 7만5719명이 채용됐다. 그러나 입사 6개월을 전후에 퇴사한 인원은 4만161명(53%)에 이른다. (후략)

2. 설명내용

□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구직활동이 활발한 **에코세대 인구가 '17~'21년에 증가**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채용을 견인하기 위해

○ 기업이 **"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"**를 **전제로**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**기업당 최대 3년간 지원**하는 사업으로 '21.5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음(청년 1인당 월 75만원, 기업당 최대 3년)

○ 따라서 지원대상 청년의 3년 근속률만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**지원기업의 전체 고용증가 효과,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**해야 함

❶ '19.6월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을 설정하는 제도 개편 이후에 **동 장려금을 받은 청년의 1년 근속률은 77.7%~81.4%로 일반 중소기업의 청년 1년 근속률(46.6%, '20년 말<고보DB>)에 비해 높음**

- 또한,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사업 실효성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**청년들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쌓은 경험을 토대로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자발적 퇴사**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

* 퇴사 사유 중 "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" 비중이 84.5%('21.9월 기준)

❷ '21.9월 현재, 지원 대상 사업장의 **평균 근로자수가 0.4명~1.9명 증가하였다는 지적**은,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**실제 증가인원을 다소 과소 평가**한 측면이 있으며,

*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을 채용한 이후의 청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증가 인원을 산출하였으나,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기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

- 실제 장려금을 지원받기 전후를 비교하면 '21.9월까지의 **지원기업당 평균 청년근로자수는 1.5명~2.2명(증가율은 16.0%~19.8%) 증가**하였음

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.9월	직전년도 →'21.9월
'18년 최초지원 사업장	13.2명 (직전년도)	13.5명 (참여연도)	14.4명	14.8명	15.4명	2.2명 (16.7%)
'19년 최초지원 사업장	-	9.4명 (직전년도)	10.1명 (참여년도)	10.5명	10.9명	1.5명 (16.0%)
'20년 최초지원 사업장	-	-	9.1명 (직전년도)	10.5명 (참여년도)	10.9명	1.8명 (19.8%)

❸ ‘19년에 실행한 자체 연구*에서,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 고용효과를 30~50%로 분석하고 있으며,

* 「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」('19년)

- 타 고용보조금의 순 고용효과가 20~30%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**동 사업의 순 고용효과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**하고 있음

❹ 그간 **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확대와 중소·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**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음

- 이 사업을 통해 ‘18년부터 ’21.7월까지 **7.8만개 기업**에서 **46만명**의 청년을 고용하였으며, 지원 기업은 코로나19가 심화된 **‘20~21년에도 고용규모를 유지***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**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버팀목 역할**을 하였음

* 지원 기업당 평균 피보험자수(명): ('19.11~12) 28.5 → ('20.6) 28.2 → ('20.12) 28.4 → ('21.8) 29.1

- 아울러, 현장에서도 추가 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**채용을 결정하는데 이 사업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**하고 있음

* 의료기계제조업체(대전) :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 생산을 위해 청년 채용이 필요하였으나,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미루던 중 동 사업을 알게 되어 24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

*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인력 채용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('19년 위 연구) : 83.5%

□ 한편, 정부는 지난해 **코로나19로 청년고용이 악화**된 상황에서

○ **청년**들이 **IT 분야로 취업**하거나 **다양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**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, **기업**에게는 **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채용 여력을 확대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**“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”과 “청년일경험지원사업”을 추진**하였음

○ 두 사업을 통해 **코로나19 등의 영향**으로 **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**에서 **‘20년 약 7.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**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

○ 기사에서는 두 사업이 **“단기 일자리만 양산하였다”**고 지적하고 있으나,

- ’21년 8월말 기준 **6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의 비율(고용유지율)이 68.6%***인 점,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**정규직 채용 및 전환율이 61.7%**인 점을 고려할 때, **“단기 일자리만 양산하였다”**고 보기 어려움

* ‘20년 채용자 중 6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 : 약 5.2만명(전체 7.6만명의 68.6%)

↳ ’21.8월말 기준 계속 근로자(3.5만명) +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직자(1.7만명)

□ 정부는 청년채용장려금이, 청년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기사의 취지에 공감하며,

○ **장려금이 청년의 취업을 돕고,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**을 기하겠음